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1월 1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담당자	• 송암미술관장 송주형 ☎440-6771 • 담당자 박용운 ☎440-67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송암미술관에서
 전시관람하시고 기념품도 받아 가세요**
- 11.1. ~ 11.27. 인천시 송암미술관 전시 만족도 조사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암미술관에서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송암미술관은 동양제철화학(현 OCI)의 고(故) 이회림회장(1917~2007)이 평생에 걸쳐 모은 고미술품을 2005년 인천시에 기증하면서 시작돼 2011년 4월 ‘인천시립송암미술관’으로 정식 개관했다.

현재 11,000여 점에 이르는 도자기, 공예, 회화 작품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상설전시장인 공예실(1층), 서화실(2층)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 20세기에 이르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대표유물로는 인천시 공립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갖고 있는 보물 1977호의 <평양성도>를 비롯해 겸재 정선의 작품으로 전하는 <노송영지도>, 오원 장승업의 작품으로 전하는 <화조도> 등이 있다.

또한 야외전시장에는 아름다워 정원 에 석등, 부도, 문인석 등을 전시 해 관람 시 잘 꾸며진 역사공원을 산책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특별전시실에서는 <문자+그림>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다.

<문자+그림> 특별전은 ‘문자도(文字圖)’ 를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로 옛사람들이 삶의 원칙으로 갖고 있었던 유교적 생활원리(효제충신예의염치 등)를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그림 속에는 문자와 생활철학이 녹아 있다.

또한 어린이 관람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체험코너도 마련해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찾기 편하게 기획돼 있으며, 특히 특별전은 연장전시 계획 중으로 관람객들의 만족도 조사 의견을 반영해 전시의 일부를 수정할 예정이다.

전시만족도 조사에 응하는 관람객에게는 크레용을 이용해 자신만의 화분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된 커피박 재활용 화분을 가족당 1개씩 제공할 예정이다.(다자녀의 경우, 자녀의 인원수만큼 제공)

어린이용 커피화분(크레용팟)은 인천시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연수구자활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송주형 인천시 송암미술관 관장은 “관람객 만족도 조사기간 중에 <소나무 in 정원> 같은 송암미술관 정원을 거닐며 쉼을 갖는 행사와 <송암미술관 가족체험행사(11월 5일)>를 개최한다”며 “깊어가는 가을 송암미술관에 오셔서 전시도 보시고 휴식과 힐링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송암미술관 전경



조사응답자용 기념품